

# 국힘 전대 컷오프 친윤·현역 대거 탈락...이준석계 약진

### 대표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최고위원 원외인사 대거 분선 진출 제주도 시작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

국민의힘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당 대표 후보(후보명 가나다순)가 전당대회 본경선에 올랐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 본경선에는 김병민·김용태·김재원·민영삼·정미경·조수진·태영호·허은아 후보, 1명인 청년최고위원 본경선에는 김기람·김정식·이기인·장예찬 후보가 각각 진출했다.

국민의힘 유흥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명이 경쟁한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는 현역의원인 김기현(4선)·안철수(3선) 후보와 원외 인사인 천하람 순천강 당협위원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예비경선을 통과했다. 현역인 조정태(5선)·윤상현(4선) 후보는 탈락했다.

최고위원 후보 1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원외의 김병민·김용태·김재원·민영삼·정미경 후보와 현역 초선 의원인 조수진·태영호·허은아 후보가 본경선에 올랐다. 현역 의원인 박성중·이만희(이상 재선)·이용(초선) 후보와 원외 문병호·전강정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청년최고위원 본경선에 오른 4명의 후보는 모두 원외의 인사다. 현역 초선인 지성호 후보를 포함해 구혁모·김영호·서원렬·양기열·육지연·이욱희 후보는

본경선에 오르지 못했다.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예비경선 여론조사는 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3개 조사기관을 통해 지난 8~9일 이뤄졌다.

본경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후보들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유 위원장은 설명했다.

전날 한 인터넷 매체가 익명의 당 관계자를 인용해 '김기현 후보가 과반에 못 미치는 득표율로 1위로 통과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선거위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배준영 선거위 대변인은 본경선 진출자 발표 직후 이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3개 여론조사기관 대표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밀봉한 봉투를 오늘 오전 10시에 가져와 유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그것을 사진으로도 남겼다"며 "(즉석에서) 종합한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들은 오는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권역별 후보 합동연설회를 연다.

본경선은 다음 달 8일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진다. 본경선 투표는 3월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모바일 투표와 자동응답방식(ARS) 투표 방식이 혼용돼 진행된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 경우 전당대회 이튿날인 9일에 1·2위 후보가 양자 토론회를 하고, 10~11일 온라인(K-보팅)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 뒤 12일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힘내라 대한민국' 제3차 전당대회 - 더 나은 미래 서약식에서 김기현(오른쪽부터),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당 대표 후보가 공정경쟁 및 선거결과 승복 서약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 대통령 "산업현장 폭력·협박·공갈 놔두면 그제 국가냐"

### 세종서 32개 부처 공무원 대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세종에서 32개 부처 공무원 150여 명과 만난 자리에서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

### 고 당부했다.

노동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고 언급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을 지적하며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의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 행위를 정부가 방지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는 불법을 놔두면 그제 정부고, 국가냐"라고 반문했다.

해의 순방 성과를 거론하며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말했다.

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 단속과 관련,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사람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없으면 마약사범 검거는 어렵다"며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행정안전부 조직국에 지원을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김기현 '대세론'·안철수 '실력론' 지지 호소

### 국힘 당권주자 당심 잡기 수싸움 결선투표 영향 천·황 득표율 주목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본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당권주자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가나다순) 후보가 당원투표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당심 확보를 위한 치열한 수 싸움에 돌입했다.

이들 4명 중 누가 1위를 했는지, 과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있는지도 당원히 알 수 없다.

다만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가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인 만큼 이번 결과도 비슷했을 거라거나, 아니면 책임당원 6000명만을 상대로 한 조사였던 만큼 다른 양상이 펼쳐졌을 수 있다는 추측 정도만 나올 뿐이다.

관심은 양강 구도를 형성해온 김·안 후보 경쟁에서 과반 득표를 차지할 후보가 나오지에 쏠리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조직표를 등에 업은 김 후보가 과연 '어대현'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을 증명할지, 안 후보가 대통령실 및 친윤계 집중 견제를 뚫고 보수 집권여당 당권을 차지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친·황 후보의 최종 득표율도 주목된다. 본경선에서 과반 후보가 없어 1, 2위가 결선투표를 할 경우 이들 두 후보에게 갔던 표심이 '캐스팅보

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남은 레이스에서 '대세론'을 부각하며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김 후보 측은 지난 10일 발표된 예비경선 결과에서 안 후보를 넉넉한 차이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한다.

최근 들어 안 후보가 과거 당적을 여러 번 옮긴 전력이거나 그의 과거 발언을 깎집어내 '보수 정체성'을 공격해온 김 후보는 '안철수 당 대표=당 분열' 프레임으로 전통적 보수당원 표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에도 "현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지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며 잠재적 대권 주자인 안 후보를 겨냥했다.

아울러 최고위원 네 자리에도 친윤계 후보를 최대한 당선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캠프 내부적으로 친윤 성향 최고위원 후보들과 '러닝메이트'를 할지를 고민 중이다.

안 후보 측은 책임당원 6000명이 참여한 예비경선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친윤계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한 점, 친이준석계 후보들이 경선에 오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전체 84만명에 육박하는 본경선 당원 투표에서도 친윤계의 조직표가 기준에 정치권에서 전망했던 만큼 힘을 못 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지지율 두달만에 30%대 초반 하락

### 갤럽 조사...공정 32%·부정 59%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두달 만에 30%대 초반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59%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1월 31일~2월 2일)보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3%p 올랐다.

이어 "직무 긍정률은 작년 취임 초 50%대였으나 8월 초와 9월 말 두 차례 24%까지 하락한 적 있고, 10~11월 평균 29%에 머물다 연말 상승해 지난주까지 30%대 중반, 부정률 50%대 중반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 (16%), '공정/정의/원칙' (9%), '노조 대응' (7%), '결단력/추진력/독심', '국방/안보' (이상 5%), '경제/민생' (4%), '주관/소신', '전반적으로 잘한다',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 '변화/쇄신' (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 (17%), '외교', '독단적/일방적' (이상 12%),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6%), '여당 내부 갈등/당무 개입' (5%), '소통 미흡' (4%), '발언 부주의', '공정하지 않음', '통합·협치 부족',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검찰 개혁 안 됨', '서민 정책/복지' (이상 3%) 등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p 오른 37%, 더불어민주당이 3%p 내린 31%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29%, 정의당은 3%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 OPEN

2023년 2월 1일,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7층 | ☎ 062-521-0041

꿈을 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SGI서울보증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